

세탁소의 진화

24시 무인 빨래방 전성시대

빨래를 집에서만 해결하던 시대는 지났다. 빨래할 시간이 없는 바쁜 현대인들이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24시간 무인 빨래방을 찾고 있다. 카페처럼 쉬어가고, 원하는 시간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기는 무인 세탁 서비스까지, 세탁소는 진화 중이다.

글_이은혜 기자(매거진 GOLD&WISE)



셀프 빨래방이 뜨는 이유

철마다 바뀌는 이불이며 커튼과 같은 부피 큰 세탁물을 집에서 빨고 건조 하는 일은 한마디로 고역이다. 더구나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황사철이나 끈끈한 날씨의 장마철은 여름으로 빨래에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요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셀프 빨래방이다. 일명 '코인 빨래방'으로 불리는데,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선 오래전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돼 왔다. 동전을 넣고 대용량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세탁부터 건조까지 드라마 한편 볼 시간이면 충분하다. 특히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빨래를 할 수 있는 편의성과 일반 세탁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인기의 주역, 24시 코인 빨래방

다양한 업체의 코인 빨래방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운영 방식은 별반 다르지 않다. 500원 짜리 동전을 넣어 대용량의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한다는 점, 24시간 이용 가능하

다는 것, 그리고 무인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다. 이용요금은 세탁물 종류 및 양, 냉·온수 여부 등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지만 보통 1회 세탁 요금은 4~5,000원 선으로 저렴한 편이다. 물론 건조기 사용료는 별도다. 조작법은 매뉴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간편하다. 세제와 섬유유연제는 무료로 자동 투입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세탁에서 건조까지 대략 1시간~1시간 30분 내외가 소요되며,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본인이 직접 꺼내 건조기로 옮겨 이용하면 된다. C 업체의 경우, 고객이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면, 매장 내 직원이 세탁 후 건조기로 세탁물을 옮겨주거나 건조가 끝난 세탁물을 개어 정리를 대신해주는 세탁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쉬어가는 휴식 공간, 카페형 셀프 빨래방

단순히 빨래만 하던 코인 빨래방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세련된 인테리어와 휴식 공간을 접목한 카페형 셀프 빨래방이 트렌드다. 아예 빨래방 한 칸에 카페를 운영하며

How to use!



☑ 이용법

- **회원일 경우** (멤버십 포인트 적립 가능)
무인 계산기를 통해 회원 가입 후 이용 금액 충전(카드/현금 결제 가능) ▶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고 세탁기 번호 확인
→ 무인 계산기에서 회원 인증 후 이용 세탁기 번호 선택
→ 선불금 결제 ▶ 건조기 이용법 동일
- **비회원일 경우**
비어있는 세탁기 또는 건조기에 세탁물을 넣고 500원짜리 동전을 넣어 사용

Check!



☑ 셀프 빨래방 이용 시 체크 사항

- 세탁 · 건조기 사용 전 세탁물 세탁 방법 확인
- 주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제품의 파손, 수축, 이염, 색 빠짐은 본인 책임
- 세탁 전 주머니가 비었는지 꼼꼼히 체크
- 세탁물 분실, 도난에 주의
- 업체는 책임지지 않으니 세탁 완료 시간 체크
- 운동화, 애견용품, 오염이 심한 제품은 세탁하지 않는 것이 에티켓
- 다음 이용객이 기다리지 않도록 세탁 · 건조 시간 준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바리스타가 뽑아준 커피와 각종 티, 디저트를 맛보며 톡톡이 업무를 보거나 답소를 나누는 풍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태원 해방촌에 위치한 L 업체의 경우, SNS에서 가장 핫한 카페형 셀프 빨래방이다. 올 화이트 콘셉트의 아기자기한 카페 인테리어가 입소문을 타면서 빨래방 이용 손님뿐만 아니라 데이트를 위해 찾는 커플들도 많다. 무인 코인 빨래방보다 안전하고, 세탁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카페형 셀프 빨래방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간 제약 없는 무인 세탁 편의점

세탁소 영업시간에 맞춰 방문할 겨를이 없는 바쁜 현대인을 위한 무인 세탁 편의점도 등장했다. 드라이클리닝, 가

축세탁, 특수 세탁 같은 세탁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에 맡기고 2~3일 뒤 완료 문자가 발송되면 원하는 시간에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는 셀프 빨래방 한켠에 무인 세탁함이 함께 위치해 있거나, 아예 편의점처럼 단독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셀프 빨래방에 스마트 무인 세탁함을 운영하는 C 업체는 회원가입 후 세탁함에 세탁물을 넣고 특별 요청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세탁이 완료되면 세탁물이 보관된 접수함 번호가 문자로 전송되고, 원하는 시간에 방문해 결제 후 세탁물을 수거할 수 있다. P 업체는 무인 세탁 편의점의 선두 격으로, 이용법은 C 업체와 비슷하다. 완료된 세탁물은 최대 7일 이내까지 보관되며, 이후부터는 보관료를 지불하고 직접 수령하거나 착불로 택배 수령할 수 있다.

TIP

편의점과 세탁소의 콜라보레이션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편리함이 세탁소와 만났다. S 편의점의 경우, 무인 세탁함을 시범 운용 중이다. 와이셔츠, 블라우스 등 간단한 세탁물부터 점퍼, 코트, 신발 등 총 7개 카테고리, 80여 개 세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세탁물 종류를 입력하고 투입구에 내용물을 넣은 후 세탁물이 도착했다는 문자를 수령하면 편의점을 재방문해 결제 후 회수하면 된다. 기존 프랜차이즈 세탁 서

비스보다 최대 약 15%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다. A 편의점의 경우, 프랜차이즈 세탁 기업과 제휴를 맺어, 고객이 제휴 세탁 기업의 모바일 앱을 통해 세탁물을 접수하면서 가까운 A 편의점 지정 후 해당 점포에 세탁물을 맡기면 업체가 세탁물을 수거해간다. 완료된 세탁물은 다시 A 편의점에 맡겨지고,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수령하거나 다른 곳에서 원할 경우 택배를 통해 수거 가능하다.